

CEO 동정

### 호남고속철도 노령터널 관통식 참여



김광재 이사장은 7월 3일 호남고속철도건설구간 중 전라남도과 전라북도를 연결하는 노령터널(4300m) 관통행사에 참석하여 축하사를 전했다.

### 청렴결의대회 참석



김광재 이사장은 7월 1일 본사에서 개최된 '청렴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청렴결의 서명식을 갖고 전 임직원의 반부패 청렴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했다.

### 경영품질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



김광재 이사장은 7월 1일 본사에서 임직원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경영품질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22건의 우수사례를 포상하고 성과급 천만원을 지급했다.

### 2013년 상반기 퇴임식 축하



김광재 이사장은 6월 28일 본사에서 진행된 상반기 퇴임식에 참석하여 평생을 철도산업에서 소임을 다하고 영예롭게 퇴임을 맞은 직원들을 축하했다.

### 호남고속철도 건설현장방문



김광재 이사장은 7월 3일 호남고속철도 만경강교, 부용교, 갈산터널 등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2014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관리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새정부 국정기조 반영한 조직개편 실시

- '행복주택' 신설, '안전실' 확대, 기술융합형 조직구성 -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국정과제 수행역량 강화 ▲기술융합 ▲부서별 적정업무 배분이라는 3대 원칙을 기본으로, 내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전 직원의 의견을 반영한 조직개편 및 부서장 인사를 7월 1일자로 시행했다. 주요개편사항으로는 경영지원안전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이사장 직속 '안전실'로 분리하고 품질관리 업무는 '품질연구소'로 통합하여 건설안전과 품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도 신설했다. 또 철도분야 핵심기술 융합과 미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신호제어처'와 '정보통신처'를 '신호/통신처'로 통합했고 처의 하위부서도 단순 사업중심에서 기획, 융합전략 등 미래업무와 정책개발 위주로 개편했다.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사업 수주에 따라 '미국지사'를 신설하여 미국 철도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도 마련했다. 아울러, 본부는 조직개편과 함께 모든 간부직위에 대해 희망자들에게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가장 우수한 제안자를 임명하는 '술 간부직 공모제'를 실시했다. 경영성과처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안전한 사회, 서민생활 안정 등 새정부 국정기조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부서 간 칸막이 철해를 통해 미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기술융합형 조직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비리 임직원 솜방망이 처벌 대폭 강화기로

- 징계양정 대폭 강화토록 인사규정 개정 추진 -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은 정부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강화정책에 부응하고 비위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금품·향응수수 시 징계양정을 대폭 강화하도록 인사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간 직무와 관련하여 3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수수 시 파면, 100만원 이상 수수 시 해임하도록 한 것을 100만원과 10만원 이상으로 각각 개정하고 수수금액별 징계기준도 단일화하여 강한 기준만 적용토록 하며, 공공유용 및 횡령자도 징계양정을 한 단계씩 강화기로 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단은 각종 비리자에 대한 징계기준이 어느 공공기관보다 미흡하고 징계처분에 있어서도 관용을 베푸는 관례가 없지 않았기에 2011년도 이전 과거 7년간 연속 청렴도가 최하위권이었으나, 현 이사장 취임 후 비리자에 대한 강한 처분과 신상필벌 원칙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청렴도를 중·상위권 수준으로 개선했다. 하지만 일부 징계자가 노동위원회에 제소하여 징계사유는 타당하지만 징계처분이 강하다는 결정을 받기도 했다.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토록 인사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과거 노사간 합의한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과 반드시 협의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 협의 중에 있다.

### 2013년도 상반기 창의혁신으로 203억원 절감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철도경제건설'을 위하여 2013년도 상반기 혁신과제 44건을 추진한 결과 약 203억원을 절감했다. 절감내역으로는 ▲도심구간에 건설되는 지하철도 BOX 구조물 직상부에 작용하는 하중 기준을 철도하중 조합에서 버스, 트럭 등 일반교통하중조합으로 개선하여 철근량의 약 5%를 절감, ▲철도변전소 내에 분산 설치되는 각종 제어설비를 통합하는 등 3건의 설계기준 개선, ▲변전건물의 설치위치 조정, ▲터널 강구부 시공방법을 개착식에서 반개착식으로 변경 개선하는 등 건설현장의 환경을 고려한 경제설계 및 시공방법 9건을 개선함으로써 158억 원을 절감했다. 또 민자역사의 신규사업 및 증축에 따른 점용허가를 위한 공공기여(국가귀속) 수준을 재정립하고, 전라·호남선 폐선부지 활용을 지자체 도시개발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등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45억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본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한 예산절감 및 수익창출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등 철도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으로 SOC 투자예산축소에도 불구하고 시행 중인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건설사들의 철도건설공사 간접비 청구소송 기각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전라선 신평~여천간 철도개량 노반신설공사에 참여한 삼부토건 외 3개 건설사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29억원을 공단에 청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건설공사 간접비 청구소송은 시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기가 연장될 경우 시공사의 간접노무비, 경비 등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최근 들어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과당경쟁, 최저가낙찰제와 실적공사비제도 등으로 인한 건설사의 경영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은 원·피고간의 총 공사금액이 증가된 계약변경과정을 심리하여 원고가 청구한 간접비 증가액은 이미 변경계약 시 반영된 것으로 판단했고,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신청과 동시에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은 채 변경계약이 체결된 이상 간접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처는 최근 건설사들의 경영난 등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소송 증가를 감안하여 사업비를 적기에 확보하고, 관련기관 인허가 기간 단축,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협력업체 동반성장 위한 온라인구매·입찰상담 창구 개설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7월 8일부터 중소기업 등 협력업체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온라인 구매·입찰상담 창구(www.ebid.or.kr)'를 구축·운영한다. 온라인 구매·입찰상담 창구를 통해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신기술인증제품(NEP), 우수조달물품 및 녹색제품 등 정부가 지정한 제품을 발주계획에 포함하여 공지하고, 협력업체는 신기술 개발제품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철도건설에 필요한 고품질의 자재를 확보하는 창구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올해 본부는 3차례에 걸쳐 오프라인 구매상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등 협력업체가 자사의 우수생산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발굴된 우수제품을 설계 등에 반영해 고품질의 자재를 조달토록 했다. 오프라인 상담회는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져 어려움이 많았지만, 인터넷 망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으로 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고 공단은 실시간으로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구매·입찰상담이 훨씬 수월해졌다. 본부 관계자는 "온라인 구매·입찰상담이 가능해져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고 전했다. 온라인구매상담 전용 창구(www.ebid.or.kr)는 조달청에 등록된 기업은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